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buse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Adolescents

김경하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Kyoung-Ha Kim(gh608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 4학년도 4차년도 중학교 1학년 2,09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Pearson 상관계수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의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감소시키고,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학대 | 방임 |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적응 |

Abstract

This study was examin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buse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adolescents. For this research, this study used the 4th-year data from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4th grader in elementary school and analyzed 2,092 1st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analys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the study used sobel tes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neglect and abuse negatively effected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Second, adolescents' ego resilienc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Third, adolescents' ego resilienc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buse and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home, school, and local community need to make an effort to improve ego resilience of adolescents, who are suffering from parental neglect and abuse, for school life adjustment.

■ keyword : | Neglect | Abuse | Ego 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 |

* 본 연구는 송원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7년 01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02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02일

교신저자 : 김경하, e-mail : gh6081@hanmail.net

1. 서론

청소년에게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습의 장인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1]. 또한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는 그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2].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 발표”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자 수는 47,070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0.8%를 차지하였으며, 초등학교 0.5%, 중학생 0.6%, 고등학교 1.3%로 학업중단율이 보고되었다[3]. 학업중단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4].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없이 청소년들이 정규교육을 마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에 학생 스스로 욕구에 맞게 변화되거나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으로[5],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 및 요구 사이에서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순응 혹은 적응의 정도를 말한다[6].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자신감 그리고 동기가 긍정적이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들의 행동특성도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학교와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7].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 관련 요인으로는 개인의 내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자아존중감[8][9], 자기효능감[10], 자아탄력성[8], 공격성[11], 사회적 위축[12]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환경 관련 요인으로는 개인을 둘러싼 가족, 학교 및 사회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11], 부모애착[13], 또래애착

[14], 교사애착[9]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공격성, 사회적 위축,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부모양육태도이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으로 방임과 학대를 들 수 있는데, 방임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복지에 무관심한 소극적인 행동인 반면, 학대는 청소년을 해치려고 하는 적대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15].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높은 청소년은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주의력 결핍, 공격성, 비행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6][17], 나아가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0][11].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지만, 부모의 방임 및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각자 처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처리해 나가는 적응력의 개인차로[19],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0].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통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생활 및 직무 스트레스[21][22], 스마트폰 중독[23], 이직의도[24]가 낮아지고,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소수이기는 하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라는 위기상황은 학교생활적응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26][27].

최근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표 1]에 제시되어있다. 과거에 방임은 학대의 하위 차원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방임의 원인과 영향이 학대와는 다르므로 방임과 학대가 각각 독특한 하나의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방임과 학대를 각각의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방임 보다는 학대 관련 연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임보다는 학대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고 손상이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015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가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 중 방임이 17.2%, 정서적 학대 17.5%, 신체적 학대 16.1%, 성 학대 3.7%, 중복 학대 45.6%로 조사되었다[33].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감소시키고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돕는 전략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청소년 각자가 갖고 있는 특성 변인으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므로 확인된 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중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극소수 이루어졌고,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에서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서로 상이한 바, 반복연구를 통해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방임 및 학대라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학교생

활적응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분석틀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둘째,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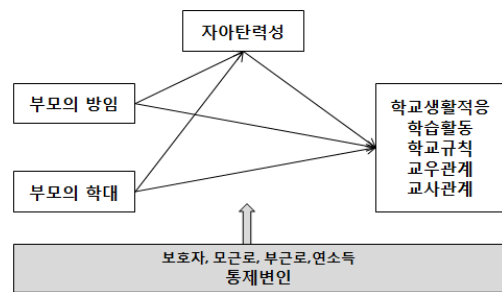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분석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2009년 4월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2010년부터 2016년의 7년간 실시되는 종단패널조사로 본 연구는 4차년도 중학교 1학년 20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098명으로 52.5%, 여학생이 994명으로 47.5%였다.

2. 연구도구

2.1 방임

방임 척도는 허묘연(2000)[34]과 김세원(2003)[35]의 아동 학대 문항을 참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성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Likert 4점 척

표 1. 방임, 학대 및 학교생활적응 관련 연구

독립	연구변인		연구논문
	종속	매개	
학대	학교생활적응	사회적위축	박기원(2014)[12]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	서인균, 이연실(2015)[28]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송지연, 박민재(2015)[8]
	학교생활적응	휴대폰의존도, 인터넷이용빈도	송진영, 박용순, 염철기, 최성숙(2015)[29]
	학교생활적응	공격성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2014)[11]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우울	이시연(2014)[30]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이윤아, 최진아(2015)[31]
방임	학교생활적응	자아정체성, 삶의 만족도	송순만, 백진아(2016)[32]
	학교생활적응	공격성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2014)[11]
	학교생활적응	사회적위축	박기원(2014)[12]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이윤아, 최진아(2015)[31]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였다.

2.2 학대

학대 척도는 허묘연(2000)[34]과 김세원(2003)[35]의 아동 학대 문항을 참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성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3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2002; 권지은, 2003 재인용)[37]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민병수(1991)[38]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학교행사 관련 5문항을 제외하고 구성된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하위영역으로 각 영역 당 5개 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값 중 학습활동 1문항(공부시간에 탄 것을 한다)과 교우관계 1문항(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을 제외한 18개 문항의 측정값을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고 하위영역별로는 학습활동 .78, 학교규칙 .82, 교우관계 .61, 교사관계 .85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때 비연속형 변인은 터미변수 처리하였다. 넷째, 방임과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39]의 단계접근법에 따라

표 2. 방임, 학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N=2092)

변수	1	2	3	4	5	6	7	8
방임	-							
학대	.24**	-						
자아탄력성	-.33**	.07**	-					
학습활동	-.39**	-.23**	.38**	-				
학교규칙	-.34**	-.11**	.36**	.54**	-			
교우관계	-.41**	-.23**	.48**	.52**	.54**	-		
교사관계	-.34**	-.09**	.37**	.47**	.50**	.44**	-	
학교생활적응	-.46**	-.20**	.49**	.80**	.81**	.75**	.80**	-
M±SD	1.76±.52	1.79±.69	3.02±.44	2.86±.56	3.01±.53	3.12±.42	2.93±.64	2.98±.43

**p<.01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1982)[40]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방임, 학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고, 연구변인들의 기술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임의 평균은 1.76점(SD=.53), 학대의 평균은 1.79점(SD=.69)으로 나타나 방임과 학대의 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3.00점(SD=.45) 이었고, 학교생활적응 평균은 2.98점(SD=.43)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학습활동 2.86점(SD=.56), 학교규칙 3.01점(SD=.54), 교우관계 3.12점(SD=.42), 교사관계 2.93점(SD=.64)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부적상관($r=-.46, p<.01$)으로 나타나 부모의 방임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영역별로는 교우관계($r=-.41, p<.01$), 학습활동($r=-.39, p<.01$), 학교규칙($r=-.34, p<.01$), 교사관계($r=-.34, p<.01$) 순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

한 부적상관($r=-.20, p<.01$)으로 나타나 부모의 학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영역에서는 학습활동($r=-.23, p<.01$)과 교우관계($r=-.23, p<.01$)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학교규칙($r=.11, p<.01$)과 교사관계($r=.09, p<.01$)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r=.49,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영역에서는 교우관계($r=.48, p<.01$), 학습활동($r=.38, p<.01$), 교사관계($r=.37, p<.01$), 학교규칙($r=-.36, p<.01$)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방임 및 학대와 자아탄력성 간 상관관계에서 방임은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r=-.33, p<.01$)을 학대는 또한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r=-.07, p<.01$)으로 나타나 방임과 학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대보다는 방임이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게 나타남으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대보다는 방임을 높게 지각할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임 및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인 방임, 학대 및 자아탄력성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0.7미만의 값을 나타냄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차 확인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하위영역인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및

표 3.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N=2092)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R2	$\Delta R2$	F
1	방임	학교생활적응	-.439	-15.268***	.219	.213	33.849***
2	방임	자아탄력성	-.315	-10.249***	.105	.098	14.186***
3	방임	학교생활적응	-.323	-11.605***	.340	.333	54.944***
	자아탄력성		.366	13.222***			

p<.01, *p<.001

교사관계는 학교생활적응 전체와 상관관계수 0.8이상의 값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매개효과의 검증 시 학교생활적응 전체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방임 및 학대와 학교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39]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유의성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유의성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1단계와 3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2)[40]를 실시하였다.

2.1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정확한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먼저 확인한 후, 확인된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모직업’과 ‘모직위’는 결측값이 모두 45%가 체크되어 제외하였고, 비연속형 변수인 성별, 보호자, 부학력, 모학력, 부근로, 모근로, 부직업, 부직위는 더미처리하였으며, 더미처리 과정에서 보호자는 모, 부, 기타로, 부와 모의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부직업은 군인, 사무직, 서비스직, 노동직으로 변환하였고, 연속형 변수인 연소득은 그대로 분석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보호자, 모근로, 부직업, 연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가 어머니일 때,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부의 직

업이 군인이거나 사무직 일 때, 연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on과 Kenny(1986)[39]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결과를 제시한 [표 3]과 [표 5]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2.2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고, 연구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일차 확인한 바와 같이 공차한계 0.1이상, 분산팽창지수(VIF) 10이하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방임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영향($\beta=-.43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방임은 자아탄력성에 부적영향($\beta=-.31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방임과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방임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영향($\beta=-.323$, $p<.001$)을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영향($\beta=.33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 방임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1단계($\beta=-.439$, $p<.001$)에서 3단계($\beta=-.366$, $p<.001$)보다 크고 설명력도 1단계 21.3%에서 3단계 33.3%로 증가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한 부분매개 ($Z=-8.083$, $p<.001$) 변인임을 확인하였다[표 4].

표 4. 자아탄력성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N=2092)

변수	B	S.E.	Z
방임 → 자아탄력성	-.263	.026	-8.083***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적응	.363	.027	

p<.01, *p<.001

표 5.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N=2092)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R2	$\Delta R2$	F
1	학대	학교생활적응	-.209	-6.721***	.074	.066	9.618***
2	학대	자아탄력성	-.095	-2.956	.017	.009	2.056*
3	학대	학교생활적응	-.167	-6.042***	.275	.268	40.457***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452	16.309***			

*p<.05, **p<.01, ***p<.001

2.3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일차 확인한 바와 같이 공차한계 0.1이상, 분산팽창지수(VIF) 10이하로 문제가 없었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영향($\beta=-.20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학대는 자아탄력성에 부적영향($\beta=-.095,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학대와 자아탄력성을 동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영향($\beta=-.167, p<.001$)을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영향($\beta=.45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1단계($\beta=-.209, p<.001$)에서 3단계($\beta=-.167, p<.001$)보다 크고 설명력도 1단계 6.6%에서 3단계 26.8.%로 증가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한 부분매개($Z=-2.952, p<.01$) 변인임을 확인하였다[표 6].

표 6. 자아탄력성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N=2092)

변수	B	S.E.	Z
학대 → 자아탄력성	-.060	.020	-2.952**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적응	.448	.027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 및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이 낮다는 선행연구[13][41] 결과와는 일치하였고, 방임은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의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학교생활적응이 낮으나, 학대는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선행연구[11][12]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방임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었으나, 학대는 모든 연구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기원(2014)[12]은 학대는 방임과 달리 타인이나 외부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학대상황을 중단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졌거나, 타인이나 가족 중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 부모의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변인이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모의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 고찰을 어려웠지만, 부모의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하여 또래애착이 높아진 결과[42]와 비추어 볼 때,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방임으로 인한 영향에서 청소년

년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변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다는 선행연구[8][12][43]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연구들을 통해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방임과 학대뿐 아니라 학업스트레스[26], 학교스트레스[27] 및 자살생각[44]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고, 또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써,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 활동 등이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학대보다는 방임으로 나타난바, 방임에 대한 부모, 교사 나아가 사회의 관심과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지적하고 싶다. 방임은 학대와는 달리 의도되지 않고 또한 학대처럼 외현적으로 드러나게 타나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방임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청소년은 부모의 방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 연구자는 학대도 중요지만 특히 방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가 매우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부모의 방임과 학대라는 위기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일회성 또는 일정기간 단기의 프로그램 참여로 지속적인 자아탄력성 증진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학교현장에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적극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학교현장에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자유학기 활동에서 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됨에 따라 많은 중학교에서 교과활동 외에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주제선택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의 4가지 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활동 내에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요소들을 반영하여 운영한다면든지 또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으로 규명된 개인 내적 특성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독립적인 하나의 활동으로 구성해서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유학기 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자아탄력성이 증진 환경에 노출이 되고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이 증진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방임과 학대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별 접근을 제안한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정옥분, 광경화, "배려 지향적 도덕성과 정의 지향

- 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24권, 제1호, pp.1-20, 2003.
- [2] 김용수, 주석진, "도시와 농촌지역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1호, pp.183-203, 2010.
- [3] <http://kess.kedi.re.kr/post/6650351?item>
- [4]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1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서, 2014.
- [5] A. A. Hane, C. Cheah, K. H. Rubin, and N. A. Fox, "The role of matern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shyness and social reticence in early childhood and social withdrawal in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Vol.17, No.4, pp.795-811, 2008.
- [6] M. B. Spencer,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Vol.34, pp.43-57, 1999.
- [7] 구분용,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완벽주의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8권, 제2호, pp.707-718, 2007.
- [8] 송진영, 박민자,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43권, pp.57-84, 2015.
- [9] 이예진, "전환기 청소년의 개인특성, 또래애착 및 부모양육행동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제52권, 제5호, pp.519-528, 2014.
- [10] 송선미, 권순용,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1권, 제1호, pp.93-115, 2014.
- [11]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2호, pp.261-284, 2014.
- [12] 박기원,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제5권, 제1호, pp.1-15, 2014.
- [13] 박현영, 강승희,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 행동,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구조,"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pp.43-55, 2011.
- [14] 문은식,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 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제21권, 제2호, pp.23-36, 2012.
- [15] 홍미, 김효진, "아동학대 및 방임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28권, pp.47-59, 2007.
- [16] 김나연,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7] 이충권, 양혜린, "청소년의 학대, 방임 경험이 정서문제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문제와 또래관계 간 상호인과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1호, pp.261-285, 2015.
- [18] 김재엽, 장용연, 이승준, "부모로부터의 방임·정서학대 및 신체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제25권, 제25호, pp.157-183, 2013.
- [19]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5, pp.1067-1079, 1996.
- [20] S. S. Luthar, D. Cicchetti, and B. 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71, No.3, pp.543-562, 2000.
- [21] 지명원, 이주연, "정서노동자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49-263, 2012.
- [22] 김혜진, 서경현, "중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6호, pp.297-316, 2016.
- [23] 전원희, 조명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

- 마트폰 중독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pp.739-747, 2016.
- [24] 강진숙, 이경남, “원장의 코칭리더십과 영아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제19권, 제1호, pp.321-342, 2015.
- [25] 이조경, 백순희,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102-115, 2016.
- [26] 강명희, 이수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6호, pp.265-293, 2013.
- [27]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8호, pp.49-70, 2013.
- [28] 서인균, 이연실, “청소년기 학대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제34호, pp.45-68, 2016.
- [29] 송진영, 박용순, 엄철기, 최성숙, “부모의 청소년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의존도와 인터넷이용빈도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30권, pp.57-85, 2015.
- [30] 이시연, “청소년이 지각한 학대와 학교생활 간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제22권, 제2호, pp.401-420, 2014.
- [31] 이윤아, 최진아, “부모의 학대,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제52권, 제3호, pp.331-339, 2015.
- [32] 송순만, 백진아,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14권, 제10호, pp.327-337, 2016
- [33] http://koreal391.go.kr/new/bbs/board.php?bo_table
- [34]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35] 김세원,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6]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 [37] 권지은,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8] 민병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39]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40]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2.
- [41] 최미혜,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 pp.59-92, 2016.
- [42] 허세희, *청소년 방임과 또래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비저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비교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43] 이해영,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교정복지연구*, 제37권, pp.89-119, 2015.
- [44] 여지영, 박태영,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8호, pp.121-145, 2013.

저 자 소 개

김 경 하(Kyoung-H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박사수료)
- 2009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아동간호, 인간성장발달